

“불교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정우택(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통도사를 시작으로 근년 들어 전국 사찰에는 많은 성보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혹은 계획중이며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 개관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많은 성보박물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은 해당사찰의 성보만이라도 도난, 화재 등의 재난에서 스스로 보존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건립 취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여러 예를 통하여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보박물관의 건립은 전시 및 보존기능, 시스템 및 운영자 그리고 예산 등 박물관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동시에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거의 모든 성보박물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안고있으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발 박물관의 성공 사례에 고무되어 치밀한 계획을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심원스님께서서는 그야말로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토론자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면 마치 사족이 될 만큼 심지어는 앞으로의 대안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다만 성보박물관은 앞으로도 계속 건립 또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대효과, 기능

발표자께서는 이미 성보박물관의 효과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대부분은 박물관, 미술관의 일반론과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보박물관은 유물의 보존과 더불어 신앙심의 고취 즉 포교가 주된 기능이어야 하며 그것이 곧 특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도 무방하겠지요.

2. 건립 및 운영

지금까지의 성보박물관은 능력보다 큰 규모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보면 첫째, 건립의 명확한 목적의식 둘째, 국가 관련 기관의 지원 셋째, 종단의 지도기능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후의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설계, 건립, 운영은 모두 사람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둘의 필수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공급방안 없이는 올바른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유지조차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이미 엿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운영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구속력까지 있게 갖추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지원도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의 문제는 관련기관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 이상 큰 규모, 적절하지 못한 위치 그리고 소장품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예산지원 기관에서나 가능한 최소한의 통제, 관리조차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비없이 건립만을 시도한 사찰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전문인력과 교육기관

발표자께서는 문화재 전문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종단내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보박물관의 전문인력 문제는 제도미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찰측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능력있는 연구자가 기피한다든지 사찰이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여 생겨난 것이다.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은 현재 대학의 유관학과에서 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별도의 양성 기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립 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있고 불교미술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미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인적 자원만으로도 정보박물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립 대학인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와 위탁교육 등 협조체제를 이룬다면 굳이 종단내 별도의 교육기관을 둘 필요가 없으면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종립대학 관련학과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운영이 우수한 박물관을 시작으로 학예원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정보박물관이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미 발표자께서 현재 정보박물관의 상황을 직시하시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평소의 생각을 위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